

나의 책과 학문의 길

허 응

한글학회 회장

내가 걸어온 '학문의 길'은
내가 지어낸 '나의 책'들의 머리말에
잘 나타나 있다.

1. 음운론에 대한 관심

지난날 우리들은, 말의 공부는 말소리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나도 말소리에 대한 공부를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광복 전에는 물론이요, 광복 뒤에도 우리말의 말소리에 대한 책은 '우리 말본'의 '소리갈' 이외에는 구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더구나 음운론에 대한 체계적인 책은 하나도 없는 형편이었다.

이것이 내가 부산 대학에서 국어 음운론 강의를 맡으려고 했던 1947년 경의 우리 국어학계의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참고가 될만한 논문들을 이것저것 읽고, 외국의 음운론 서적들을 구해 보기도 하고하여 천신만고 강의를 계속하다가 책으로 펴내게 된 것이 <국어음운론>(1958, 정음사)이다.

수년래 국어 음운학 강의를 맡으며, 참고할만한 한 논문은 상당히 많았으나, 음운론 전반에 걸친 기술의 체계는 필자 자신이 서투르게나마 세워 보는 수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몇 년 동안 강의한 노트를 정리한 것이 이 책이다.(<국어 음운론> 머리말에서)

그러나 나올 때부터 나에게서는 불만이 많았던 모양이다.

필자는 일년 반 전에 이 원고를 탈고하였다. 이제 교정을 보며, 내 자신으로도 불만한 점이 많아, 다소 이것을 보충하노라고 권말에 보유를 붙이기는 하였으나, 이것으로 자신의 불만을 충족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요는 이와 같은 서투른 저서가 불필요하게 될 날이 하루바삐 오기를 바랄 뿐이다. (같은 책 머리말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책은 여러 번 찍혀 나왔으니, 그 때의 우리 나라의 국어학의 정도를 짐작할 만하다.

그 뒤에 나는 이 책을 두 번 다시 고쳤다. 그 첫고침판은 <개고신판 국어음운학>(1964, 정음사)이고, 다음 고침판은 <국어 음운학—우리말 소리의 오늘 어제—>(1985, 샘문화)이다. 두 번 고치는 동안에 내 학문도 꽤 나아간 점이 있었기에, 두 번째의 음운학은 이론적인 면에 있어서나, 자료 면에 있어서나 꽤 많이 다듬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그러나 욕심 같아서는 다시 한 번 더 다듬을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2. 언어학의 일반 이론의 모색

근대화의 세계사적 과정에 뒤늦게 참여한 우리 나라는 모든 방면에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에 뒤떨어지면 후진성을 면하지 못한다. 언어학에 있어서도 역시 그렇다. 우리 언어학은 세종 시기에 고도로 발달하여 '훈

민정음과 같은 전무후무한 걸작을 만들어 내었으나, 그 뒤 이 성과를 이어받지 못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우리가 현대 언어학에 참여하게 된 것은 20세기 초기부터이다. 그러나 이것도 일제의 발굽 아래 짓밟혀 수십 년 동안 기를 펴지 못하다가 광복 뒤에 비로소 서양 언어학에 바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미국의 언어학의 조류가 몰밀 듯 들어오게 된 것은 1950년 이후이다.

나도 이러한 방면에 눈을 돌려 광복 전부터 공부해 온 언어학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6·25의 그 무서운 시기에도 문을 잠그고 들어앉아 언어학의 공부에 열중하였다. 그 뒤 일자리를 서울대학교의 언어학과에 얻게 되며, 우선 절실히 요구된 것이 언어학의 개론 서적이었다. 미국에서 많은 개론서가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그 때에는 복사할 도리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 비싼 원서를 사서 강의할 수도 없었다.

그러하여 이 절실한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지어낸 것이 <언어학 개론>(1963, 정음사)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나라에서는 언어학과 국어학은 다른 학문인 것처럼 착각되어 왔었다. 언어학이란 곧 서양 여러 나라말에 관한 학문이며, 그 소재나 술어는 모두 서양말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 것처럼 생각되어 온 것이다. 언어학이 서구에서 고도로 발달되었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을 배워 왔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큰 잘못이다. 언어학은 그렇게 먼 곳에 있는 학문은 아니다. 언어학은 언어 즉 말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우리말을 연구하는 국어학은 곧 언어학인 것이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국어학의 굳건한 토대 위에, 일반 언어학을 건설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며, 그렇게 해야만 우리 나라 언어학의 든든한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언어학 개론> 서문에서)

이 책의 서문은 이 책의 성격을 잘 말해 주고 있다.

내가 〈언어학 개론〉을 짓고 펴낼 때만 해도, 우리 나라에는 언어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서울 대학에 오직 하나 언어학과가 있었으나, 언어학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졸업생들은 언어학을 전공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겨우 한 기에 한 사람 정도 언어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나올까말까 한 실정이었다. 그러는 동안에, 외국 특히 미국의 언어학의 조류는 그야말로 밀물처럼 우리 나라에 들어 오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왔다. 그 중에는 언어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의 언어학 이론에 따라 국어를 설명하려는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이런 추세에 내 〈언어학 개론〉은 이제는 그 사명을 다했구나 하는 생각을 내 스스로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이 책을 절판하겠다는 출판사의 기별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절판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계속 판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상한 일이다. 어찌서 이러한 책이 아직까지 읽힌단 말인가? 그러나 판은 계속 되었다. 그 때 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책도 아직 그 사명을 다한 것은 아니로구나. 그러나 이러한 책을 그대로 두는 것은 후학을 위해 죄를 짓는 일이다. 다시 고쳐야겠다.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고치기로 했다. 그 동안에 내 공부도 다소 나아간 데도 있고 하여, 이제 남의 말을 전하는 언어학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말로 언어학을 기술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꽤 깊이 생각해 생각을 거듭하여, 지어낸 것이 〈언어학—그 대상과 방법—〉(1981, 샘문화사)이다.

욕심 같아서는 전체를 완전히 바꾸고 싶었다. 그러나 필자에 주어진 시간과 필자의 학문적인 힘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 중의 중심되는 부문에 중점적으로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1장의 말의 본질에 관한 부분에서는, 필자가 언어를 보는 각도에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겼으므로, 필자의 의견을 꽤 대답하게 나타내기도 했다. 그리고 3, 4장의 말의 소리, 5장의 의미, 6장의 문법에 관한 부분들도 모두 거의 완전히 다 시 썼는데, 여기에서 필자가 가장 힘을 기울인 초점은, 지난날의 기술언어학과 그 뒤에 발전된 이론과를, 소리 의미 문법의 여러 분야에 걸쳐, 일관된 원리로 조화시키려 한 일이다.((국어학) 머리말에서)

‘언어학’을 쓰고 난 뒤에, 이 이론을 국어학에 연결시킨 것이 <국어학-우리말의 오늘 어제-> (1963, 샘문화사)이다.

국어학의 연구가 황무지 상태였던 19세기 끝 무렵의 모습을 개탄하고, 우리 말과 글의 연구를 자기의 사명으로 두 어깨에 짊어진 한한샘 선생이 살아 계셨던 시기에 비하면, 지금의 국어학은 꽃을 피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연구는 활발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하나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너무나 민감하여, 자기가 디디고 있는 땅이 어딘지 잘 모르고 있는 데서 오는 부작용이다. 주시경 선생 이후 잘 가꾸어진 국어학의 수준 높은 즐거가 있는데도, 그것을 돌보지 않고, 일제 시대에 일본 학자들이 남겨 놓은 업적에 발을 디디고 있는 사람도 있고, 서양말에 적용된 이론을 비판 없이 그대로 국어에 적용하는 경향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전통의 고아’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러한 반식민지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학문의 풍토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나라를 보존하고 일어나게 하려면 그 말과 글이 깊이 연구되고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주시경 선생의 민족주의적 학문의 정신과 그 학문의 업적을 이어받아 발전시킨 전통적인 국어학의 즐거에 발을 디디고 다른 것을 흡수해야 한다.((국어학) 머리말에서)

3. 옛말본에 대한 집념

나는 어릴 때부터 최현배 스승님의 <우리 말본>에 심취해 있었고, 지금 말의 말본은 이것으로 완성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1949년에 '용비어천가 강의'를 프린트로 해낸 것은, 이 방면의 내 첫 저서(?)인 셈인데, 여기에는 한결 김윤경 스승님의 '기림 말'을 받아 앞에 붙였으니, 나로서는 과분한 영광이었다.

한 민족의 국어는 그 민족과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다. 그 민족이 비참하게 될 때 그 국어도 비참하게 되고, 그 민족이 번영하게 될 때 그 국어도 번영하게 되며, 반대로 국어가 없어지고 그 민족만이 번영하여지는 법이 없다는 것은 과거의 역사가 잘 증명하여 준다. …… 이제 허 응 교수의 '용비어천가'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발표를 보게 됨은 국어학계의 한 경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에는 용가의 역사 사실에 대한 풀이가 없었다. 그리하여 읽는 분들에게서 매우 불편하다는 말이 많아서, 6·25를 겪고난 뒤에 이것을 다시 다듬고 역사 사실에 대한 간단한 풀이를 덧붙여 <용비어천가>란 이름으로 정식으로 출판이 되었다.(1955, 정음사)

현대어를 중심으로 한 우리들 선배의 연구 업적을 계승하여, 일인들의 연구 결과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아울러 구라파 언어학의 방법을 도입하여, 여기에 새로운 국어학을 건설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 어학도의 당면한 과제이다.

우리의 고전도 이러한 새로운 각도로 연구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용비어천가> 서문에서)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월인천강지곡(상)>을, 하정 이강로 선생과 같이 주해를 해내었는데, 어학적인 주석은 내가 맡고, 불경의 배경을 캐내는 어려운 작업은 하정이 맡았다.(1962, 신구문화사) 월인천강지곡의 주석으로는 이것이 처음인 것으로 생각된다.(여기에는 원본의 영인이 붙어 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우리 옛말에 대한 여러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에 중요한 세 편의 논문 - 존대법, 인칭 - 대상 활용, 성조 -을 한 책으로 묶은 <중세국어 연구>(1963, 정음사)를 출판하였는데, 이 때 나는 학계나 사회나 정치계에 대해서 무척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다.

우리의 환경은 갈수록 가혹을 더해 가고, 학문에 대한 사회적인 냉대는 이제 그 극에 도달한 느낌이 없지 않다. 고난의 길이 앞으로 더욱 더해 갈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내적 외적 악조건 밑에서 이 이상의 강행군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스스로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중세국어 연구> 서문에서)

그러나 나는 붓을 놓지 않았다. 15세기 국어 말본에 대한 집념은 꺾이지 않았다. 그 자료 모으기와 정리는 계속되어, 1969년 <옛말본>(과학사)을 내놓고 이어 그동안에 15세기 말본에 대한 모든 자료를 총정리한 <우리 옛말본-15세기 국어 형태론->(1975, 샘문화사)을 펴내게 되었으니, 이 책은 내 평생의 피나는 노력의 결정이다.

15세기 국어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체계와 현대 국어의 체계를 역사적으로 연결시켜 보자는 것이 내 스무살 전후의 무모한 소원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일에 착수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15세기 옛문헌을 수집하고 카드를 만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해방 전의 일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해방 바로 뒤에 있어서도 옛문헌을 얻어 보

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값이 비싼 데다 사진으로 찍는 일도 아주 어려워져서, 결국은 필사를 해가면서 자료를 모으는 도리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소절음으로 일을 진행시켜 오다가 겨우 자료 모으기를 끝내고 원고 집필에 착수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7-8년 전이었다. 이제 교정을 끝내고 머리말을 쓰게 되니, 무던 붓이 무척 더디기는 했으나 나로서는 감개가 그지없다.((우리 옛말본) 머리말에서)

15세기 국어의 말본을 짓고 난 뒤에 나는 이어서 한 세기를 단위로하여 그 말본을 쓸 생각을 - 무모한 생각을 -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몇 년 동안 고생하여 지어낸 것이 <16세기 우리 옛말본>(1989, 샘문화사)이다.

1975년에 <우리 옛말본>을 내놓고서, 그 때 생각으로는 곧 우리말 말본의 역사를 연구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내놓은 책들이 대개 손질을 하지 않고서는 그대로 둘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 동안 <언어학>(1981)을 다시 쓰고, <국어 음운학>(1985)을 고쳐 쓰기도 하고, 1983년에는 <국어학>을 새로 써내기도 했다. 그러나 말본의 역사에 대한 집념은 버릴 수가 없었다.

나는 일찍 말본의 역사를 추적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다. 하나는 편의상 정해진 여러 시기의 말을 공시적으로 기술한 다음, 그 여러 시기의 언어를 세로 통합하여 그 변천의 모습을 체계 세우는 방법이고, 다른 한 방법은, 각 말본 범주의 역사를 각각 따로 추적한 다음, 이것들을 모두 어울려서 정리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우선 뒤의 방법을 따라 연구하기로 하고, 1977년부터 1982년 사이에 '때때김법'의 역사를 각 세기별로 정리하고 이를 통합해 보았다.(그 논문들은 <국어 때때김법의 변천사>[1987]에 묶었다.)

그러나 이 방법보다, 백 년을 잘라서 각 시기의 말본을 공시적(?)으로 기술하고, 그것을 세로 통합하는 방법이 번거로움을 더는 일이 되잖을까 생각하게 되어,

우선 16세기 말본을 이번에 내놓게 되었다.(<16세기 우리 옛말본> 머리말에서)

이 책을 쓰고 난 뒤에 나는 무척 지쳐 있었다. 글 쓰는 데 힘이 들었을 뿐 아니라, 그 교정을 보는 데 더 힘이 들었다. 그 때만 해도 우리 나라의 컴퓨터 기술은 아직 초보 단계에 있었는데, 이 책을 활자로 하지 않고 컴퓨터로 시작한 것이 잘못이었다. 그 교정에서 글 쓰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들었다. 그리하여 이 책을 내고 난 뒤 계속해서 17세기 말본의 자료를 모으기 시작해 보았으나, 몸이 너무 지쳐서 당분간 쉬기로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생각한 것이 15세기와 16세기를 이어 주는 일이었다. 이미 출판한 두 책을 이어 주면 국어사의 한 부분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만들어 낸 것이 <15-16세기 우리 옛말본의 역사>(1991, 탐출판사)이다. 이 책을 내게 된 동기는 다음에 나타나 있다.

말본의 역사는, 이러한 공시적 기술이 각 시기에 걸쳐 완성이 되고, 다음으로 이것들을 세로 꿰뚫어 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너무나 길은 먼데 해가 짧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선 15-16세기의 말본의 역사를 엮어 보기로 하였는데, 이것은 오로지 연세대학교 국학 연구원 여러분들이 나에게 그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국학 연구원에서는 지난 일 년 동안 내가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여기에 그 사연을 밝혀 깊은 감사를 드린다.(<15-16세기 우리 옛말본의 역사> 머리말에서)

<붙임> 처음 계획으로는 <20세기 우리말 형태론>과 국어 정책에 관한 책에 대해서도 언급할 생각이었으나, 여기까지 이미 제한된 분량이 넘어 버린 것 같다. 이 책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